

2016 새 설계

박 홍 륜 목포시장

“모든 행정에 피드백 도입...상생 경영·일자리 확대 총력”



박홍륜 목포시장은 3일 “2016년은 목포가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는 해로 삼고 ‘일자리가 늘어나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을 화두로 내딛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에 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분양에 총력을 펼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올 한해도 마른 수건을 짜는 정신으로 재정건전성 향상과 재정자립도를 높여겠다는 의미다.

특히 해양관광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박 시장은 “호남고속철도 KTX 개통과 맞물려 야간 시티투어, 유달산 둘레길 조성, 남진야시장 개장,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했다”며 “목포의 랜드마크가 될 유달산~고하도 간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우선협상 사업자가 확정된 만큼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찾아와 계속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해상케이블카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유달산, 북항, 고하도 등 관광자원을 개

산단 분양·해양케이블카 박차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만들 것

청렴도·재정건전성도 대폭 향상

발하는 ‘뉴 관광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할 계획도 내비쳤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성과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인한 결과, 부채 320억원 탕감을 비롯한 특별교부세로 10개 사업 34억 4000만원을 확보했고 2016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신규사업 9건 103억원을 포함한 총 49건에 3067억원을 반영시키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냈다고 자평했다.

박 시장은 또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첫 특단의 조치로 목포시 모든 행정에 ‘피드백(feed-back)’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2016년 주요 시정 과제로 청렴도 향상을 제시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고객에 대한 상시 피드백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상생 경영’을 시정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 목포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인·허가 사업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서 바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피드백을 도입,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완성도 높은 시정을 펼쳐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삼성 등 대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나아가 고위 간부들과 하위직 직원들 간 피드백도 수시로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 인사에도 반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16년 시정목표 중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형 경제도시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내놨다.

그는 “지난 12월 라오닝 보화실업그룹 송치 회장의 목포 방문 시 대양산단 수산물 수출 가공단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목포~중국 닝보저우산 간 카페리 취항도 전남도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상해 시 관계자 등과도 접촉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2016년 주요 역점 사업은

- ▲대양산단 분양 총력
-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 ▲목포 도시브랜드 개발
-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 ▲가수 이만영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 보호에 열정을 쏟겠다는 게 박 시장의 전라이다.

그는 특히 목포권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과 함께 서해권 해상중합교육장을 중심으로 뱃고동 소리 가득한 ‘풍요로운 항구도시 목포’의 명성을 높이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 시내버스 노선 5월부터 전면개편

중복·장거리 노선 통합 축소

간선 1-1번, 1-2번 등 폐지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목포시는 용해·육안(남약)지구 등 도시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해 버스노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목포시는 “이번 노선 개편은 중복 노선과 장거리 노선을 과감하게 통합 축소하고, 일부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개편안은 오는 4월까지 승강장 정비와 BIS정비 등

을 마친 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의회보고,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4개 군 의견수렴, 동 순회 보고회(8개 관역),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 29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번 노선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 목포 시내버스는 25개(간선 6, 지선 10, 순환 3, 좌석 6) 노선에 170대가 운행 중이지만, 이번 노선 개편에 따라 간선 1-1번, 1-2번과 지선 8번이 폐지되고, 좌선 600번과 700번은 통폐합된다. 대신 원도심과 신도심을 오가는 9번(해양대 후문 ↔전남도청) 노선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목포 시내버스 노선은 22개로 줄고 총 168대가 운행된다.

박경연 목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노선별 운행 거리, 중복도, 이용 수요, 특정구간의 배차 집중률 등을 기준으로 노선은 줄이되 운행횟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비수요·적자 시외계 노선과 중복 노선의 구조조정으로 2015년 기준 50억원, 2016년 추산 54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이 20.6% 개선돼 연간 11억1500만원의 경감수익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지역 시내버스 연간 탑승객은 총 1643만8500명으로 집계됐다. 황금노선은 연 188만명이 이용한 1번 노선이었으며 이용률이 가장 낮은 노선은 연 5만6700명이 탑승한 119번 노선으로 나타났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해수청, 목포구등대에 강강술래 조형물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3일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등대’에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강강술래를 상징하는 조형물(사진)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강강술래 조형물은 해남군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강강술래를 상징하는 여인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 제작했으며, 해남 주광낙조와 조화

를 이루도록 배치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기대된다는 게 수산청의 설명이다.

현재 목포구등대에는 ‘등대가 들려주는 바다이야기’를 주제로 바다 이야기 게이트, 삼학도 조형물, 바다 산책로가 조성돼 있으며, 실내 전시관에는 선박항해 체험시설, 3D 인공지형 관광안내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jis0533@



8년째 자비 들여 해외교포 위문공연...예향목포 알리기 앞장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목포지회

올해도 8~12일 마닐라 공연

목포지역 연예예술인들이 매년 순수 자비를 들여 해외교포 위문공연을 펼치는 등 ‘예향 목포’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목포지회(지회장 임정성)는 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없이 8년째 ‘찾아가는 해외예술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해외공연의 첫 시작은 지난 2009년 1월 마닐라 공연으로, 당시 첫 해외공연에도 교민 1000여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룬 것이 기록됐다. 이후 2015년 2월 광 공연에 이르기까지 매년 1, 2월에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 현지 교민을 찾아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도 20여명으로 공연단을 꾸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6일 동안 필리핀 마닐라 남부 한인회(한인회장 나성수)를 찾아 위문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마닐라 한국인 피살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현지 교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



목포 연예예술인들이 8년째 동남아 현지 교민들을 찾아가 위문공연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공연 모습.

공연단은 두 차례 공연을 통해 교포들의 향수를 달래 줄 ‘목포 아리랑’과 ‘고향역’, ‘목포의 눈물’, ‘목포의 찬가’, ‘유달산이 말해다오’ 등 대중가요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목포는 항구다’의 색소폰 연주, 성악, 각설이타령, ‘아! 대한민국’ 합창 등도 선보인다.

특히 이들은 매년 해외공연 때마다 태극기 500장과 대형 무궁화 그림(창전 박채배 화백 작품) 1점을 현지 교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한민족 정체성의 지킴이 역할도 해내고 있다.

예술 감독을 겸하고 있는 임정성 지회

장은 “교포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민족의 노래로는 단연 ‘아리랑’과 ‘목포의 눈물’이 꼽힌다”면서 “특히 마지막 프로그램인 태극기를 흔들며 ‘아 대한민국’을 합창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교포가 없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공연 분위기를 전했다.

지회는 이 밖에도 매년 ▲실버 쇼 한마당 ▲목포 실버가요제 ▲가을 사랑 콘서트 ▲관광목포 예술의 향기 여행 ▲목포 시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목포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성을 풀어주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제5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2016년 3월 1일(화) 08:30 출발

문의 :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상무지구 끝!! 풀코스, 하프코스 중심 대회!!

대회개요

1. 코스
  - (1) 풀 코스 : 아시아문화전당(구,전남도청) 출발 → 승촌보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 (2) 하프코스 : 아시아문화전당(구,전남도청) 출발 → 서창교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2. 종 목 : 하프코스, 풀코스

신청 및 접수

1. 참가자격 : 신체건강한 모든 사람(제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접수마감 : 2016년 2월 5일(금)
3. 참가비 : 25,000원
4. 신청방법
  - 가. 홈페이지 접수 : http://mara.kjmedia.co.kr
  - 나. 신청서 FAX접수 : 062-222-0195
  - 다.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금남로2가 무등빌딩 16층)

주요운영안내

1. 참가자지급품 : 배번(참가자 기록집 부착), 원주메달, 기록증(원주자), 간식 및 음료
2. 개인사상 : 풀·하프 1~45위 까지 시상
3. 특별상 : 원장부상상, 포토제닉상, 행운상 51명
4. 단체참가 특전 : 단체상 1~10위 시상(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 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 마라톤세상

후원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지방보훈청